

하나님과 동행하라! <창세기 6:1~10>

오늘 본문은 홍수가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한 3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동행의 1단계 - 예배가 발전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예배자 아벨이 죽고, 아벨의 예배를 대신하여 셋이 그 예배의 계보를 이어받습니다. 즉, 아담의 족보는 예배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름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대대로 이름을 지을 때 그 삶에 대한 예언, 그 삶에 대한 기대를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곧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죠

- * 셋 (농인, 대신이란 뜻) : 아벨 대신이라는 뜻, 참된 예배가 다시 시작됨을 의미
- * 에노스 (사람, 인간) : 창4:26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에노스시대로 오면서 예배가 회중예배로 승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 게난 (창제조자, 소유자) :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삶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노아의 재력은 게난시대부터 시작된듯합니다.
- *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 : 예배의 발전은 그의 삶에 찬양으로도 나타납니다.
- * 야렛 (후예, 후손) : 그들의 후손이 예배의 삶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후손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발전될 때 비로소 그 예배의 영향력은 흘러갑니다. 이웃에게도, 그리고 후손에게도 말입니다.
- * 에녹 (봉헌) :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성숙한 열매입니다.

이름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봉헌되었습니다. 들러올라간 것입니다. 그 자손이 바로 노아입니다.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물려지고 발전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후손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둘째, 동행의 2단계 -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창 6: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죄악이 발전되면서 정치력도 필요하고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며 이름있는 용사들이 배출됩니다. 그 당시 명성은 대단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잊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냅니다.

창 4: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낯 땅에 거주하더니 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셋의 후손이 에노스 때에 가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같은 에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부모의 신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인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거룩한 목적이 분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 동행의 3단계, 하나님과 삶 속에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창 6: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함께 걷다”, “(물) 흐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나가서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걷고, 물이 흘러가듯 함께 섞여서 흘러가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정말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계속 발전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목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란노 식구들의 삶과 후손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 8. 9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5. 8. 16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성 경 봉 독 ----- 고전 15:9~10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나는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축 도

연주와 은혜나눔 ----- 송솔나무 선교사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교제의 시간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7:30

